

여성운동 단체의 연대와 균열*

조 은**

성이 계급이나 민족 또는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로질러 단일한 운동세력이 될 수 있을까? 이는 여성운동가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학자들 그리고 사회운동이론가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 논문은 한국여성운동단체의 연결망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자료는 한국사회의 영향력있는 20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었으며 그 외에 단체의 약사와 팜플렛 등으로 보완했다. 연구의 초점은 여성운동단체간의 내부 연결망과 여성운동단체와 사회운동단체간의 연결망에 맞추었다. 여성운동단체간의 연결망은 진보적 여성단체와 보수적 여성운동단체들로 크게 나누어져 나타났으며 여성운동단체와 외부 사회운동단체와의 연결망은 노동운동단체 및 민주화운동단체들과 연결망을 가진 여성운동단체와 아닌 단체로 나누어 진다. 여타 신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결망에서는 여성운동단체들간에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사회운동단체들 자체가 매우 다양한 범주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운동단체들이 신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나 노선에 따라 다르게 연대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운동단체들이 신사회운동단체들과는 계급이나 다른 정치적 노선을 뛰어넘어 연대하고 있다고 결론 짓기는 힘들다. 성은 기본적으로 여성운동단체를 결속시키는 토대지만 계급이나 다른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언제나 결속을 유지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의 세력화의 특성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따라 연대의 기반이 바뀌기 때문이다. 성이 계급이나 다른 정치적 노선을 뛰어넘어 단일한 운동세력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성이 그러한 세력화를 가능하게 하는가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여성운동단체들이 어떤 계급이나 어떤 정치적 세력과 연대를 맺느냐에 따라 성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계급론, 가족사회학, 여성학 등.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 여성정책의 현장』(1996), “지구촌화,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신사회운동”(1997) 등이 있다(연락처: 02-2260-3259, E-mail: chomomo@cakra.dongguk.ac.kr)

정치의 판도나 사회운동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한국의 여성운동이 80년대에 들어와 지형변화를 겪었음을 여러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이효재, 1989; 신영숙, 1993; 조주현, 1996; 김경희, 1998). 이러한 여성운동의 지형변화는 여성의 '정체성'의 담론화와 관련되어지거나 또는 운동 영역의 변화와 목표 및 이념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여성운동단체의 등장이나 사회운동의 프레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¹⁾ 여성운동단체들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사회개혁운동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특수성을 살려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연대활동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²⁾ 성(gender)이 계급이나 민족 등의 경계를 넘어 단일한 세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의 단위인가 하는 물음은 오랫동안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의 숙제였으며 따라서 여성운동단체간의 연대 또는 여성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는 여성운동과 성 정치를 전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다.

여성운동의 역사가 오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최근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이 여성운동의 내용이나 목표 외에 그들의 조직적 특성 및 다른 사회운동조직들간의 갈등과 연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Ferre and Martin, 1995; Mueller, 1995). 이러한 관심의

- 1) 80년대 여성운동단체의 활동 변화는 세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소극적인 사회참여, 사회봉사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종속적 삶의 조건을 구조화하고 있는 사회체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성운동의 성격을 떤다는 점, 둘째, 여성단체의 주체가 보수적 성향을 띠는 소수의 지도자적 여성으로부터 여성 근로자, 농민, 청년여성, 가정주부 등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다는 점, 셋째, 서울을 정점으로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던 기존 여성단체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방조직이 활발하게 조직됨으로써, 정치보다 한발 먼저 여성단체의 지방화가 실현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한국여성발전 50년, 1995: 239).
- 2) 1990년대 이후 결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는 1990년 4월에 결성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1990 11월에 결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1년의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 '탁아소문제특별대책위원회', 1993년 7월의 '북경대회 준비를 위한 NGO모임', 1994년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1994년 5월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연대' 등이 있다(한국여성발전 50년, 1995: 245).

확대는 그동안 여성운동의 역사나 의제로 볼 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여성운동은 줄곧 다른 사회운동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 또는 운동영역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관계설정을 두고 논란이 되어 왔으며 여성운동 내부에서 많은 노선 싸움도 있었다. 급진과 개혁 또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그리고 급진 페미니스트들간의 논박이 오고 갔으며 여성운동이 계급운동이나 민족주의 운동 또는 인종차별 철폐운동이나 민주화 운동 등과 때로 제휴하고 때로 갈라선 역사를 가지고 있다(Cliff, 1987; Briskin and McDermott, 1993; Poster, 1995; Ryan, 1992; Ferre and Hess, 1985).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단체들이 내부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성운동단체들은 자체적인 조직의 특징을 만들어가면서 운동의 의제와 실천전략을 개발하고 다른 사회운동단체 조직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할뿐 아니라 여성운동단체끼리는 어떻게 결속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이러한 고민은 조직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적 조직체(femicracy)를 선보이고 기존의 위계적 조직과는 다른 집합결정의 조직을 현실화하기도 했다(Fantasia, 1988; Epstein, 1991). 즉 계급, 인종 또는 민족주의나 민주화 등이 여성운동을 어떻게 갈라놓는가? 혹은 반대로 여성운동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성집단을 정치적으로 연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오랜 숙제는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로 연결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간의 연대와 균열과정은 여성운동단체들의 조직구성이나 운동 스타일의 차이를 드러내며 때로는 운동단체들의 조직구조나 스타일이 이데올로기보다 더 명확하게 운동단체의 특성을 보여준다(Arnold, 1995: 287). 이러한 일련의 여성운동조직의 특성은 페미니즘과 여성운동단체, 그리고 여성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간의 연대와 거리를 이해하게 할뿐 아니라 여성운동과 계급운동 또는 다른 신사회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영역이 되고 있다(Brenner, 1996: 24; Katzenstein, 1990). 미국의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성(gender)이 계급이나 피부색이 다른 여성들을 정치적으로 한데 묶는데는 불충분하지만 성, 계급, 인종을 가로질러 정치적 연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한 여성운동 내부의 동학이 전체적인 사회운동의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Meyer and Whittier, 1994; Smith, 1995).

여성운동이 여성문제(gender issue)만을 문제삼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사회뿐 아니라 구동구권 그리고 그동안 제3세계로 불리웠던 지역도 마찬가지다(Alvarez, 1990; Basu, 1995; Merkx, 1994). 인종, 성차별주의,

자본주의가 사회지배의 축으로 작동해온 사회에서 성과 인종과 계급문제는 언제나 주요한 사회운동의 축을 구성해왔으며 이들 조직들은 때로 연대하고 때로 분열했다(Ferguson, 1991; Ryan, 1992). 여성운동과 노동운동과의 관계는 「성과 계급」 논쟁으로 불려지는 오랜 논쟁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민주화운동이나 민족해방운동과의 관계는 이론적 논박이 되고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 또한 이러한 논란과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³⁾ 한국 여성운동 역사에서 볼 때 반식민, 반자본, 반독재라는 사회운동과 여성운동간의 거리는 여성운동단체들의 주요한 숙제였다(윤택립, 1994; 조순경 외, 1995). 최근 들어서는 환경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등 이른바 친 여성적 신사회운동들과의 관계 설정 또한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 연구에서는 운동단체의 조직적 특성이나 내부의 동학, 그리고 다른 운동단체들간의 역학관계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여성운동단체들끼리 혹은 여성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이 어떤 사안을 두고 어떻게 연대하고 또는 갈등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한국여성운동단체의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사회운동에서 성이 갖는 함의와 한국여성운동의 지형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현실적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 첫째, 여성운동단체들의 조직의 특성은 어떠한가? 운동의 지형이 다른 여성운동단체들은 내부조직이나 의제에서 차이가 드러나는가? 둘째, 여성운동단체간의 연대와 균열은 어떠한가? 셋째, 여성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관계, 특히 균열과 연대의 축으로 이론화된 성과 계급, 성과 민주화 등의 관계는 여성운동단체의 연결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여성운동단체의 조직의 특성이나 연대가 앞으로 한국의 성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여성운동에서 성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성집단을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론적 현실적 관심과 이어진다. 여기서 여성운동단체의 조직의 특성은 주로 의사결정구조와 운영체계, 운동의 목표와 의제를 통해 보았고 여성운동단체간의 역학 관계는 여성운동단체의 연결망을 분석하고 여성운동단체들간의 연대와 균열을 가져온 사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관계는 노동운동단체, 민주화운동단체 및 기타 사회운동단체

3) 진보적 여성운동 내부의 성과 계급관계를 둘러싼 갈등은 1980년대 초반 여성운동의 대표주자이던 여성평우회 내부를 분열시켜 결국 해소하게 만들었다(여연, 1998: 21).

로 나누어 연결망을 분석하고 성이 계급, 민주화 그리고 기타 신사회운동을 어떻게 가로지르고 있는가를 보았다. 연구대상 단체는 학계와 언론계와 여성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했으며 자료는 199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수집했다.⁴⁾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했으며 그 외 단체의 약사, 성명서, 기관지 등의 자료와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보완했다.

2. 여성운동단체의 의제와 조직의 특성

1) 조사대상 단체의 일반적 특성: 여성단체와 여성운동단체

조사대상 단체들은 소속단체를 거느린 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나 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등 협의체의 성격을 띤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개별적 단일운동단체로 나누어진다.⁵⁾ 단일운동 단체들중에는 개별단체지만 지방 지부를

- 4) 단체 선정은 학계와 언론계와 여성계에서 여성운동단체들에 정보가 많은 인사들의 추천에 의존했으며 기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요람을 참조하였다.
- 5) — 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는 기독여민회, 민족미술협의회 여성분과,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여성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성부,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전민연 여성위원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여성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협의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여성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여성분과, 주부아카데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노동자총연맹,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여성부, 가톨릭여성농민회 등이며 또하나의 문화는 소속단체는 아니며 사안중심 협의체다.
 -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한국여학사협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중앙부인회, 가톨릭여성연합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부녀복지연합회, 한국여성항공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우먼스클럽, 한국여성문화생활회, 국제존타한국연합회, 한국여성크리스챤클럽,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우리옷협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회, 국제여성승공연합,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퇴역여군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국자수문화협의회,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본부, 한국여성정보인협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생활공예협회,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주부전문인

거느린 전국적 조직의 여성단체도 있고 전국망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단체의 소속단체로서보다는 지역 기반을 둔 개별 여성운동 단체도 있으며 지역조직이 없는 개별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이 된 단체 중 중앙의 협의체나 연합체는 7개 단체이며 산하단체가 7개, 사안중심의 협의체 1개, 단일운동단체가 5개였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 YWCA 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부인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대한어머니회, 서울 YWCA, 부산 YWCA, 한국여성의 전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톨릭여성연합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연대, 또하나의 문화 등이다. 이들 단체중 일부는 여성운동단체라고 못박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협의회>, <참교육 학부모회>, <간호협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회원들 다수가 여성이고 활동영역이 여성운동단체들과 유사하여 학계, 언론계, 여성계로부터 여성운동단체로 범주화 된 듯 하다. 실제로 이들 단체들은 정관에 <여성의 권리 신장>이 들어있지 않다. 이들은 광의의 여성단체이기는 하지만 여성운동단체로 보기는 힘들다. 이 논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여성단체와 여성운동단체를 분리시켜 자료를 읽었으며 여성운동단체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조사대상 단체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회원의 규모가 매우 작다. 시작 또한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 협의체의 경우도 20명이 모여 시작한 경우가 있으며 100명 이내로 시작한 경우가 협의체 2개 단일운동단체 1개 등 3개이며 대다수가 1천명 이내로 시작했다. 설립당시 초기 회원수도 최저 20명에서 1만명 등 매우 다양하지만 1개 단체를 제외하면 300명 이내 수준이다. 초기 상근자수도 1명에서 9명까지 다양하지만 5명 이내가 10개 단체이며 1명으로 시작한 경우가 2개 단체, 2명으로 시작한 경우가 4개 단체이다. 5명 이상은 2개 단체이며 8개 단체가 응답하지 않았다. 현재 회원은 250명에서 30여만명 등 매우 편차가 심하다.⁶⁾ 1천명 이내가 2개 단체, 2천명 이상, 1만명 이내가 6개 단체 그 이상이 9개 단체, 무응답 3개 단체이다. 단

클럽, 한미몬테소리협회 등이 회원단체이며 협동회원단체로는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전북 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등이다.

6) 조사여성단체 중 여성운동단체가 아닌 단체 중에는 회원이 3백 60여만 명인 경우도 있다.

일운동단체 중에도 회원이 5만명이 넘는 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회원수나 상근자수 등 규모가 큰 단체는 모두 협의체이다. 현재 상근자수 또한 2명에서 134명까지 다양하며 2명이 3개 단체, 3인 이상 10인 이내 6개 단체, 10인 이상이 8개 단체이며, 이중 1개 단체만 100명이 넘는다. 이들중 여성운동단체만 보면 규모는 더욱 작다. 회원수가 많고 상근자가 많은 단체는 소비자보호협의회와 간호협회 등 여성 직능 단체들이다. 여성운동단체와 여성단체는 그 규모와 수적 구성이 다르다. 단체들의 설립년도는 80년 이전에 창립된 단체가 10개 80년 이후에 창립된 단체가 10개이다. 이를 중에는 1922년과 23년 등 해방 이전에 설립된 단체에서부터 90년과 91년 등 아주 최근에 창립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조직의 특성

① 운영과 의사결정

여성운동의 조직은 의사결정구조나 조직구성에서 상당히 다양하며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연조가 높은 단체와 연조가 짧은 단체들간에는 의사결정이나 조직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오래된 여성운동단체들, 예를 들면 1922년에 만들어진 대한 YWCA 연합회(이하 대한 Y 약칭), 42년에 만들어진 대한 주부클럽 연합회(이하 주부클럽), 48년에 만들어진 한국부인회, 50년대에 만들어진 대한 어머니 중앙연합회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등이 일인 회장이나 일인 대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여연,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등은 공동대표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명망있는 인사들이 회장이나 대표를 맡았고 현재도 그러한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운동단체에서 일하면서 내부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⁷⁾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7) <여협>과 <여연>의 그들의 지도력에 대한 언급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협은 <30년사>에서 “오로지 여성의 힘을 한 데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한국여성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였으나 각자 소속단체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고 단체 사이의 조정과 연결을 원만하게 떠맡을 인물이 있어야 했다”(여성단체협의회, 1989:99)고 적고 있으며 또한 “여협 역사의 태반을 주도했던 김활란, 이숙종, 이철경 회장을 비롯한 많은 선배들께서 고인이 되시고 여협의 구성원과 위상도 초창기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변화되어 있음을 본다”(여성단체협의회, 1993: 245)에서 읽을 수 있듯이 여협은 명망있는 인사 중심의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여연은 <10년사>

단체들의 조직표는 덜 위계적이며 대체로 보다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보이며 단독 결정보다는 집합결정을 그리고 단일대표보다는 공동대표체제를 보인다.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들 중에는 회장이 수년동안 바뀌지 않거나 소수 몇 명에 의해 움직이는 운영체계를 가진 경우도 있고 특정학과의 졸업생들만으로 사무처가 구성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조사단체 중 조직에서 가장 뚜렷한 조직적 특성을 보인 사례는 1983년에 창립된 「또하나의 문화」(이하 또문)이다. 특정한 개인을 대표로 내세우지 않고 단체에서 공식직함을 가진 사람은 간사뿐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있는 조찬모임이 주요 의사결정 기구이며 정식 회원이 되면 누구나 이 조찬모임에 참석 할 수 있다. 누구라도 더 많이 참석하면 더 많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⁸⁾

② 구성원의 특성

조사대상단체 중 각 단체에서 2명씩(상근자가 1명인 단체는 1명) 상근자 38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학력은 전문대출 1명을 빼면 모두 대졸 이상이며 대학원을 마친 경우도 상당수이다. 현 운동단체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경력을 거친 경우가 20% 이내이며 여성운동단체의 경우는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한 경우 등 현장경험을 한 경우이고 간호협이나 소비협 같은 여성단체는 전문직의 경험을 가진 경우이다. 그 외 80%가 처음부터 현 운동단체 또는 다른 시민운동단체에서 일한 운동단체 전문인이다. 이들이 일하게된 경로를 보면 60%가 단체의 회원이나 선후배와 동창 등을 통해 있으며 나머지는 언론매체나 교수추천 등을 통해 입직하고 있다.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단체들은 대부분 교수추천이나 학교선후배를 통해 일하게 된 반면 80년대 이후 단체들 중에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되어 스스로 찾았거나 회원들의 소개를 받아 입직했다. 연령별로는 34년생부터 74년생까지 다양하며 30대가 가장 다수를 점한다.

회원의 성비를 보면 남성회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가 7개 단체이며 5% 미만이 4

에서 “여연의 지도력은 몇몇 사람이 발휘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아니라, 회원단체들의 참여와 활동가들의 협신성을 통해 만들어진 집단적 지도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여연, 1998: 23)고 적고 있다.

8) 이러한 조직에 익숙하지 않은 면담 조사자는 설문지의 상당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특정한 개인을 내세운 기존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문은 기존의 다른 운동단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설문의 내용을 가지고는 또문을 파악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면담소견을 첨부했다.

개, 나머지 9개 단체 중 1개 단체를 빼고는 모두 남성비가 15% 이내이다. 회원들의 분포를 보면 단순사무직의 비율이 높은 단체가 가장 많고 농어민이나 판매 생산 직비는 매우 낮다. 회원들간의 연대활동이 많은 편이며 특히 동인지나 소식지 발간, 월례강좌나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회원의 활동 등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영문 소식지를 내는 등 국제적 연결망을 가진 단체도 있다. 활발한 단체일수록 소식지 발간이나 소모임 활동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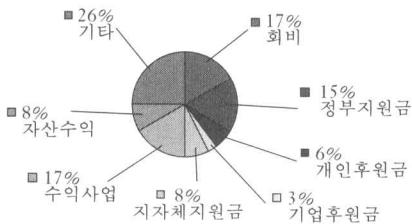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여성운동단체들과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들간에는 조직적 특성, 운동의 목표, 운영방식에서뿐 아니라 회원이나 사무처 구성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단체의 활동가들의 배경에서도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 대표나 사무총장, 상근간부, 상근직원들을 주요활동가로 보았을 때 이들 주요 활동가들의 경력에서도 두드러진 차이가 났다. 80년대 이후 단체들의 활동가들은 현장운동가 중심으로 짜여있다. 여노협, 민우회, 여성의 전화 등이 대표적으로 전업 운동가 중심으로 사무처가 구성되어 있다. 여노협의 경우 여성운동을 하기 전 노동운동을 했던 2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여성 노동운동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모여 일한다는 자긍심을 보여 내부적 연대와 결속을 보여준다.

③ 재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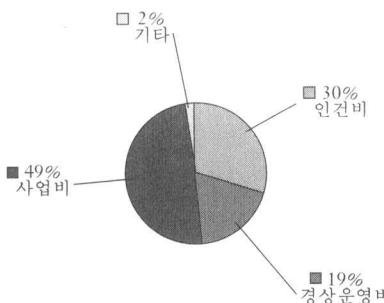
여성운동단체들의 재정상태를 보면 자립정도가 매우 낮다.⁹⁾ 운영비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게는 2%, 높으면 40% 수준이며 평균적으로는 회비를 통한 재정충당비율이 17%이다(<그림 1>). 정부 지원금을 하나도 안받는 경우는 한 단체뿐이며 낮게는 3%에서 30% 수준의 지원을 받으며 3개 단체가 25%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오래된 단체의 경우에 기업 후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80년대 이전에 창립된 여성운동단체들은 자산수익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신진단체들은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 단체들을 빼고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재정충당비율은 회비와 수익사업이 각각 17%, 그 다음이 정부지원금 15%, 지방자치단체 후원금과 자산수익이 각각 8%이다. 그 외 기타가 26%이다(<그림 1>).

1년 재정이 억대를 넘는 경우가 10개 단체이며 1억원 미만이 1개 단체였고 나머

9) 이 자료에는 여성단체로 범주화될 수 있는 4단체의 자료와 그외 2개 단체가 무응답으로 처리되었다.



<그림 1> 여성운동단체 재정충당비율



<그림 2> 여성운동단체 지출내역

지는 무응답이다. 지출은 최저 7천 6백만원에서 최고 29억까지이지만 1억 미만 3개 단체, 1억 이상 5억 미만 4개 단체, 5억 이상 10억 미만 2개, 10억 이상 1개 단체이고 나머지는 무응답이다. 지출에서 사업비 비율은 최저 25%에서 최고 76%까지이고 50% 미만이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8%에서 최대 41%까지이며 30% 미만이 6개 단체이고 30% 이상이 6개 단체, 나머지는 무응답이다. 평균적인 지출내역을 보면 사업비의 비율이 48%며 그 다음이 인건비로 30%를 점한다. 그 외 경상운영비 20%, 기타 2%이다(<그림 2>). 회비에 의한 수입 원의 비율이 낮고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30%나 된다. 그러나 많은 여성단체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도 일하지만 상근직의 임금은 턱없이 낮다. 이들의 수입은 여성운동단체의 경우 33%가 60만원 이상 99만원 이하이며 30만원에서 59만원이 30%로서 다수가 1백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여성 운동단체 활동가들은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운동단체를 운동현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봉급이 높은 여성단체는 활동가라기보다는 직

장개념이 두드러졌다. 활동가들은 과한 노동강도, 재교육프로그램의 부재, 일반회원들의 낮은 참여도 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다.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여성단체들은 “몸으로 때우는 재정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민우회의 땅기掌声 만들기, 생협활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한국여성민우회 10년사).

3) 의제와 활동범위: ‘쓰레기’에서 ‘통일’ 까지

여성운동단체들은 물론 대부분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주요 운동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운동의 의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조사대상단체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을 조사해 본 결과 ① 합리적 대안 제시 ② 민중의 권리보호(계급차별해소) ③ 환경보호 ④ 여성의 권리신장 ⑤ 의식개혁 및 도덕성 회복 ⑥ 인권보호 ⑦ 소비자보호 ⑧ 민족통일 ⑨ 의식계몽 ⑩ 장애인복지 ⑪ 기타 등 11개 항목에서 YWCA는 의식개혁, 소비자 보호, 도덕성 회복, 여성의 권리신장, 민족통일 등 5개를 꼽았고 여협은 여성의 권리 신장, 인권보호, 민족통일 3개 항목 여연의 경우는 ①부터 ⑩까지 모두를 꼽고 그외 기타로 사회민주화를 추가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신장만을 꼽은 경우는 대한 주부클럽연합회와 민우회 정도이다. 한국부인회는 ②, ⑥, ⑩만 제외하고 모든 항목을 체크하고 거기에 국제교류를 추가하고 있다. 대한 어머니회는 ②, ⑧, 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꼽았고 여성의 전화는 합리적 대안제시, 민중의 권리보호, 여성의 권리신장, 인권보호, 민족통일을 꼽았으며 전남여성농민회는 여성의 권리신장과 민족통일을 꼽았다. 가톨릭 여성연합은 여성의 권리신장, 의식개혁 및 도덕성 회복, 인권보호, 의식계몽을 꼽았다. 정대협은 합리적 대안제시, 여성의 권리신장, 인권보호, 의식계몽을 꼽았고 또문은 합리적 대안 제시, 여성의 권리신장을 꼽았으며 여성정치연구소는 합리적 대안 제시, 여성의 권리신장, 의식개혁 및 도덕성 회복을 꼽았으며 여노협은 민중의 권리보호(계급차별해소), 여성의 권리신장, 인권보호를 꼽았다. 여권신장 외에 다른 사회개혁 목표를 대부분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례활동을 보면 한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특정활동에 집중한 경우보다 백화점식으로 여러 활동을 벌인 경우가 많다. 단체들이 하는 운동은 ‘쓰레기’에서 ‘통일운동’ 까지 또는 ‘낙동강살리기운동’에서 부터 ‘핵실험 반대’ 까지 매우 다양하다. 97년 한해 동안 조사단체들의 연례 사업내용을 보면 낙동강살리기운동이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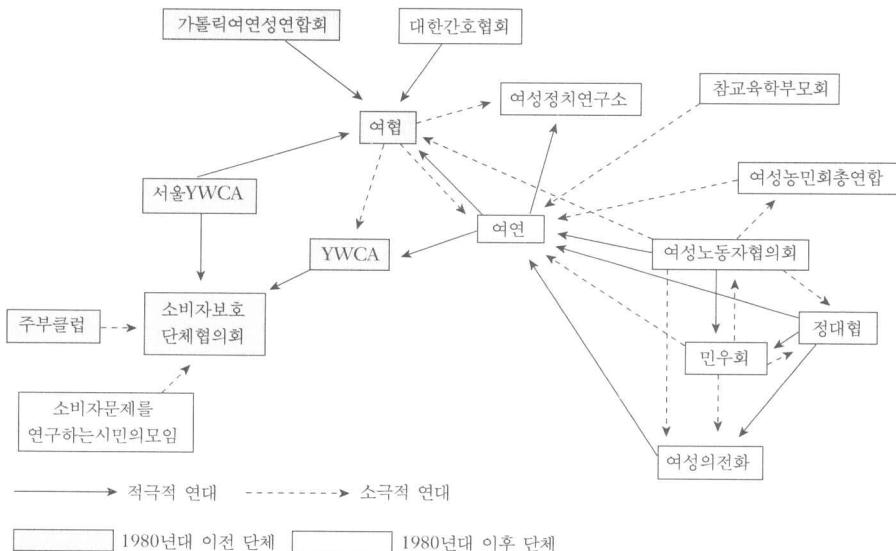
비불균형극복을 위한 딸사랑운동(부산 Y)에서부터 금모으기, 외화동전 모으기운동(대한 Y), 청소년문화 감수성훈련(주부클럽), 가출청소년찾기와 위해업소, 정화캠페인(한국부인회),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 고령자취업알선(대한어머니회), 의정참여나 경제살리기 연대(부산 Y), 쉼터 사업(여성의 전화), 북한동포돕기(가톨릭여성연합), 여성노동자문제(여노회), 출판문화운동(또문) 등 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여성운동이 수행해야 할 주제와 영역의 광범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이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 중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각 영역의 운동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갖는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운동의 고유한 운동영역이 있는가 하는 해묵은 질문을 제기할 공간을 드러낸다. 물론 연대와 갈등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3. 여성운동단체의 연대와 균열

1) 연결망

<그림 3>은 여성운동단체들간의 연대 관계를 Krackplot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다.¹⁰⁾ 적극적 연대의 조작적 정의는 특정사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한 경우며 정보만을 교류한 경우는 소극적 연대로 정의했다. 실선 화살표로 표시된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이룬 적극적 연대를 나타내며, 점선 화살표는 정보 교환에 머문 소극적 연대를 나타낸다. 화살표의 방향은 발신성과 수신성을 나타내는데, 발신은 정보나 물적 인적 자원의 연대를 요청한 경우며 수신은 다른 단체로부터 보다 물적 인적 자원의 연대를 제의 받았음을 나타낸다. 발신성과 수신성은 몇 개의 단체로부터 연대를 제의받고 몇 개의 단체에 연대를 제의했는지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연대의 강도나 횟수 등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단지 단체

10) Krackplot 프로그램 및 연결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의 이재열 교수 논문 참조. 연결망은 총 20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으나 본 그림은 연결망에서 제외된 고립자(isopaltor)를 빼고 Krackplot의 결과를 한글로 다시 그런 결과이다. Krackplot 자료처리는 동국대 대학원 김진용 군의 도움을 받았다.



〈그림 3〉 여성운동단체 연결망

들 상호간의 관계여부만을 보여준다. 연대의 강도나 횟수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에서 적극적 연대와 소극적 연대를 포괄하여 포괄적 연대로 이름 붙였다. 포괄적 연대에서 소극적 연대를 뺀 수치가 적극적 연대이다.¹¹⁾

연결망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여연과 여협은 여성운동단체간의 연결망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여성운동단체 협의체는 크게 〈여연〉과 〈여협〉으로 나누어진다. 여협은 1959년 대한여학사협의회, 대한어머니회, 대한부인회, 대한 YWCA 등 8개 단체를 회원으로 결성된 여성직능단체협의체다.¹²⁾ 여연은 1987년 21개 회원단체가 모여 만들어졌는데 성고문대책위원회, 생존권대책위원회, 그리고 KBS시청료거부 여성연합들이 모체가 되었다.¹³⁾ 1987년 여연의 발족으

11) Krackplot 분석에서 발신중심성을 계산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 표에서 제외했다.

12) 여협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여협 30년사〉(1989) 참조.

13) 여연 결성총회 모임의 명칭은 개편총회였으며 이는 그동안 함께 활동해 온 성고문대책위, 생존권대책위, KBS 시청료거부 여성연합 등이 사업을 개편하여 결성했다는 뜻이다(여연, 1998: 22). 여연의 산하단체들은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해온 단체들이거나 그 단체들의 여성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실제 사안 중심으로, 특히 지난 2-3년 동안에 법제화되거나 사회적 쟁점이 된 사안을 두고 여성운동단체들이 어떠한 연대를 형성하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이견과 균

〈표 1〉 여성운동단체들의 연대

	포괄적 연대		적극적 연대	
	발신성	수신성	발신성	수신성
1. 대한YWCA연합회	1	2	1	1
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	5	0	4
3. 한국여성단체연합	3	7	3	3
4. 대한주부클럽연합회	1	0	0	0
5. 한국부인회	0	0	0	0
6.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0	4	0	2
7. 대한어머니회	0	0	0	0
8. 서울YWCA	2	0	2	0
9. 부산YWCA	0	0	0	0
10. 한국여성의전화	1	3	1	1
1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	1	0	0
12. 한국여성민우회	4	2	0	2
13. 가톨릭여성연합회	1	0	1	0
14. 대한간호협회	1	0	1	0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3	2	3	0
16.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 모임	1	0	0	0
17. 한국여성정치연구소	0	2	0	1
18.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6	1	2	0
19.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1	0	0	0
20. 또하나의 문화	0	0	0	0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 V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로 여협과 여연은 여성운동단체의 양대 맥을 형성한다(박명선, 1995). 여협이 기존의 중산층 여성 중심의 직능단체 협의체라면 여연은 여성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기층여성이 주축이 된 운동단체 협의기구이다. 이러한 여연과 여협의 차이는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단체들과 주로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들간의 차별성으로 이어지며 여성운동단체들의 연대와 균열의 구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단체 중 한국부인회와 대한 어머니회 등은 다른 여

열을 보였는가를 보고자 한다.

성운동단체와 연결망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80년 이후 단체로는 <또문>의 연결망이 드러나지 않았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이지만 단체의 의제와 목표 때문인지 80년대 이후 만들어진 단체들과는 연결고리가 없고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소극적 연대를 맺고 있다. 가장 높은 수신성을 보이는 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며, 그 다음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순이다. 가장 높은 발신성을 보인 단체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이며, 그 다음이 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순이다. 높은 수신성을 보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각 단체들간의 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들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협의체들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주로 소속단체들로부터 수신을 받고 있으며 이는 협의체라는 조직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경우에 소비자 문제라는 특정 의제와 관련하여 연결망의 중심성을 얻고 있다. 여협은 소속단체가 아닌 YWCA 및 <소비협>과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소속단체 외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와 여성정치연구소 등과 연대관계를 맺고 있다. 여연과 여협은 직접 수신과 발신을 하고 있으며 쌍방향의 연줄망을 보여주고 있다. 여연은 적극적 연대의 발신, 여협은 소극적 연대의 발신지이다. 여연과 여협의 소속단체들이 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노협이 예외적으로 여협에 직접 발신을 하고 있다.

2) 여성운동 내부의 동학

① 여성운동단체 양극화의 의미

<그림 3>에서 보듯 여성운동단체의 양대 맥을 형성하고 있는 여협과 여협은 한국여성운동사에서 볼 때 제도권 여성운동단체와 재야 여성운동단체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여협은 30년사(1989)에서 “우리 사회가 폐폐와 혼동의 늪에 깊이 빠져 있던 시기”에 창설된 여협의 30년의 역사에 자긍심을 나타내는 한편 “우리 역사의 굴절의 시기를 지내온 단체” 또는 “어느 기구한 여성의 생활사만큼이나 요철과 기복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한다”(여성단체협의회, 1993: 245)고 쓰고 있다.¹⁴⁾ 그리고 “행동권이 유보된 상황”에서 “이러한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운동을 계속하며 일방적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것인데,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기성질서의 기성조직에 참여해서 여성해방운동의 맥을 이어 가는 것” 이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기득권에 의지한 제도권 여성단체였음을 밝히고 있다.¹⁵⁾

반면 여연은 1987년 창립하면서 “반외세”, “민주화”, “생존권 투쟁”을 함께 하는 여성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¹⁶⁾ 여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협에 대항할만한 여성운동단체는 없었으며 70년대에는 여성노동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지식인 여성들이 여성노동자편에 서기 시작한 정도였다.¹⁷⁾ 80년대 들어와 여성노동자들은 기존의 중상류층 여성들이 중심이 된 여성단체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투쟁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진보적 여성단체’를 결성하고자 했고 이렇게 하여 기득권대 기층여성운동 구조가 서기 시작했다(여연, 1998: 19). 이와 때를 같이하여 KBS의 편파적인 보도에 맞서 시청료거부운동이 범국민적으로 번져 나가자 여성단체도 연대하여 ‘KBS시청료거부 여성연합회’를 결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민주화 집회에 참여한 여대생 추행사건은 반독재 투쟁을 해온 11개 여성단체가 연대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이란 여성운동 프레임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이를 토대로 여성단체연합이 창립하게 된 것이다.¹⁸⁾ 당시 주도적 여성운동단체였던 여협

-
- 14) 실제로 여협은 ‘10월유신 계몽사업’을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이를 실시하거나 ‘총력안보 범여성 절기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여 분단상황과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독재에 항거하거나 민주화에 앞장서기보다는 총력안보의 국정목표를 지지하는 활동을 담당하였다(한국여성발전 50년, 1995: 235-236).
 - 15) “여성의 발전, 복지사회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정부와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표방하는 제도권 여성단체로서 입지를 지켜왔다”(여성단체협의회, 1993: 245)고 주장한다.
 - 16) “올바른 여성운동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만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반 여성의 억압현실을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 자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여성운동은 민족의 자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반외세 투쟁,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남녀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 인간답게 살 권리리를 쟁취하려는 생존권 확보투쟁으로 굳건히 자리잡아야 합니다.”(이우정, 〈민주여성〉) 이 글은 1987년 7월에 창간된 〈여연〉의 기관지인 민주여성의 창간사에서 인용.
 - 17) 77년 남영나일론 여성노동자 해고사건에 항의하여 YWCA, 한국교회여성연합 등 6개 단체가 연대하여 불매운동을 전개했고 78년 동일방직사건에서는 7개 여성단체들이 성금보내기, 성명서,

이 기득권과 정권의 편에 섰다면 여연은 19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면서 자주화, 민주화, 통일, 여성권익을 여연운동의 목표로 삼고 활동을 시작함을 분명히 했다.¹⁹⁾ 또한 여연은 회칙에서 “본 연합은 여성운동 세력간의 조직적 연대를 이루어 나가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 여성해방을 쟁취함을 목적으로 한다”(여연, 1998: 18)고 밝히고 있는데서 보듯이 여연은 출발점에서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여성운동과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큰 숙제로 내걸었다. 여연의 사회운동단체와 연대는 여협이나 그 이전의 여성운동단체들과 상당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② 여성운동단체의 연대와 균열의 사례

대립관계에 있던 여협과 여연은 90년대 YS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독재’라는 사회운동의 집결점이 필요 없어지면서부터 사안별 연대를 시작했다. 그 이전 6공때 까지는 여연과 여협은 단체수준에서는 거의 교류가 없었으며 사안별 연대도 해본 적이 없었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 참석을 위한 국제 NGO 모임을 시작으로 94년부터 연대를 시작하여 구체적 국내운동사안에서는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로 이어졌다.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 연대’는 처음 ‘정치 할당제 도입’에서 ‘고용 할당제 도입’ 까지 확대했으며 여기에는 여협소속 35개 단체, 여연소속 28개 단체, 대한 YWCA 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한국여성 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등이 연대했다.²⁰⁾ 그러나 여연과 여협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전연 다른 입장을 취한다. 할당제와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된 여성시간제 노동 및 파견제 여성노동 문제에서는 여연과 여협이 연대하지 않았다. 여성노동문제에 가장 관심을 보인 단체는 민우회와 여노협인데 (민우회는 주로 사무직 여성노동자에, 여노협은 주로 생산직 노동자의 단체) 민우회와 여노협의 소속단체인 여연이 시간제 노동 및 파견제 노동에 적극적인 반

진정서 보내기 등의 지원을 했다(한국여성발전 50년, 1995: 235).

18) 85년 3월 8일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한국여성발전 50년, 1995: 240).

19) 1980년대 초창기에 결성된 여성운동단체들은 정치투쟁이 바로 참여하거나 민주단체들과 연대하지는 않았으나 반독재 투쟁, 5·6공시 반정부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주화, 민주화, 통일의 정치적 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여연, 1998: 20).

20) 이들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위원회(이하 세추위 약칭) <여성사회참여 10대 과제> 시에 공무원 할당제가 벽에 부딪쳤을 때도 연대성명을 내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조은,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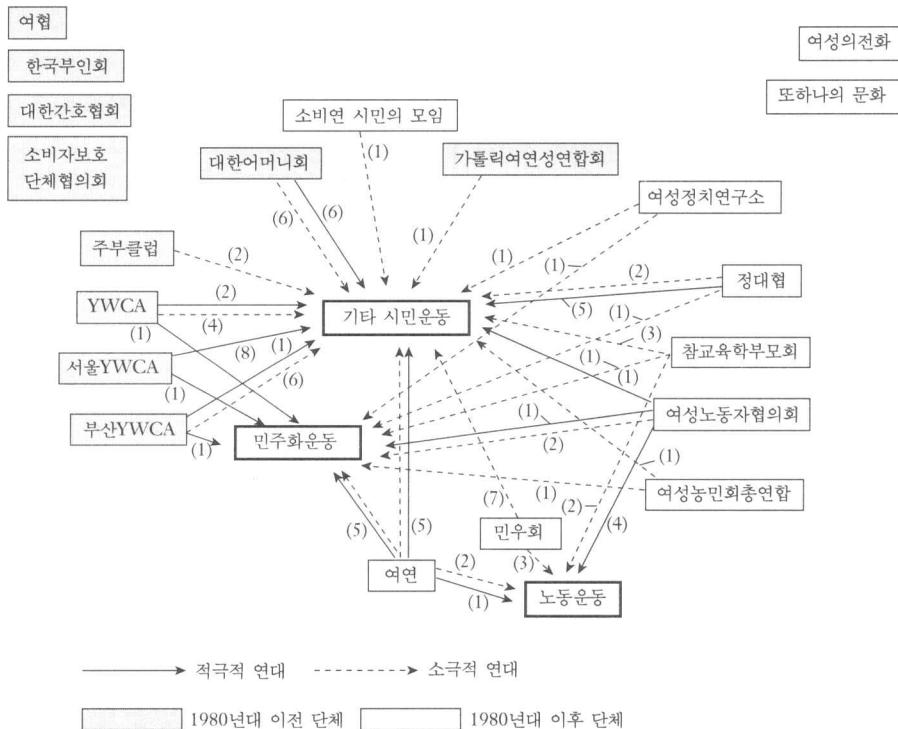
대운동을 벌이면서 여협과 연대를 원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여연은 노동자층 담론에 동조적이었다면 여협은 사용자층 담론에 보다 동조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여협과 여연이라는 양대 여성단체의 계급적 성향을 반영한다. 여연에는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를 주축으로 하는 여노협과 민우회, 그리고 민주노조 여성부 등이 가입해 있는데 비해 여협은 경총이나 경제인연합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데서도 그 차별성을 알 수 있다.

할당제에서 여연과 여협의 연대는 반정부운동이나 민주화운동 등에서 노선을 달리했던 양대 여성단체 협의체와 기타 여성단체들이 반정부운동이나 민주화운동으로 갈라설 필요가 없을 때 연대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인 반면 시간제 및 과견여성 노동에서의 균열은 여성운동단체간의 연대가 계급이해와 무관할 때는 가능하지만 계급적 이해관계를 달리할 경우 여성단체간의 연대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할당제 등 계급적 이해가 드러나지 않거나 첨예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여연과 여협이 쉽게 연대하고 있지만 계급이해가 분명하며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연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4. 여성운동의 지형: 성·계급·민주화의 경합

1) 사회운동단체와의 연결망

〈그림 4〉는 여성운동단체들이 지난 1년간 연대활동을 벌였던 사회운동단체들을 노동운동단체, 민주화운동단체, 그리고 기타 시민운동단체로 크게 범주화시켜 Krockplo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결망을 구성한 것이다. 노동운동단체로는 민주노조, 노총 등이며 민주화운동단체로는 민가협, 민협, 참여운동연대 등이다. 그 외 비영리 시민운동단체는 시민운동단체로 범주화했다. 점선은 정보교류만을 한 소극적 연대를, 실선은 인적 물적교류를 한 적극적 연대를 보여준다. 팔호안은 이들 세 범주의 단체들의 수를 가리키며 연대를 한 회수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연대의 종류에는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가두시위를 하거나 공청회를 하거나 연대 청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연대의 종류와 강도는 보여주지 못 한다. 또한 이들 단체들이 여성운동단체에 요청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여성



〈그림 4〉 사회운동단체와의 연결망

운동단체의 입장에서 본 연대여부만을 보여준다. 이 연결망은 여성운동단체들에 따라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그리고 여타 신사회운동단체들과 맺고 있는 연대가 다름을 보여준다. 여성운동단체들이 비교적 광범위한 연대를 하는 단체는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단체들 보다는 기타 시민운동단체들이다. 이들 시민운동단체들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에서부터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무효화, 생활개혁실천 범국민협회회 등 운동의 성격이나 의제가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단체들에는 주부클럽이나 대한어머니회, YWCA 등 오래된 단체들뿐 아니라 여연이나 민우회, 여노협 등도 광범위하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 연대를 하고 있다. 반면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단체들과는 매우 제한된 여성운동단체들만이 연대를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단체들과는 80년대 이후 여성운동단체들은 거의 모두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오래된 단체로는 YWCA만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운동단체는 민우회와 여연,

여노협 등만이 연대를 보여준다. 여연은 가장 많이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여협은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가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운동단체 간의 연결망에서는 여연과 양대 맥을 형성한 여협이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결망은 드러나지 않는 점은 매우 흥미롭고 주목할만한 점이다.

2) 성·계급·민주화 그리고 신사회운동

여성운동단체들과 다른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관계를 좀더 들여다 보면 성과 계급과 민주화세력이 맺고 있는 관계를 드러내준다. 이는 <그림 4>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지지만 상근자들과의 인터뷰자료, 단체의 약사, 그리고 특정사안을 둘러싼 연대를 들여다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여성운동단체들 중 여성노동문제에 관심을 안가진 단체는 별로 없지만 노동운동단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거나 연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²¹⁾ 조사대상 단체 중 <민우회>와 <여성노동자회>는 창립시부터 노동운동단체와 연대를 맺어왔다. 여연은 소속단체 중에 노동운동단체들의 여성부가 포함되어 있어 여연과 노동운동단체들의 연대는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여협이나 여협의 소속단체들은 노동운동단체들과의 연결망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결망이 있다고 해서 여성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가 여성노동문제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긴장관계에 처할 때도 많다. 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론은 성과 계급의 이중적 억압을 가장 분명하게 받고 있는 기층여성이 진보적 여성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보다는 “노동자” 문제를 앞세웠다. 그러나 여성고용평등법 제정과 개정, 여성 시간제노동과 파견노동문제 등을 경험하면서 차츰 “여성”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²²⁾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경험을 하면서 여성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의 연대의 한계를 경험했다.²³⁾ 이러한 한계는 한국사회에

21) 여노회는 여연이 결성되기전 70년대 <생존권 대책위원회> 시절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단체와 연대활동을 해왔으며 80년대 들어와 독자적인 여성노동자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사안에 따라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여성노동자회 10년사> 참조.

22) 여성운동사에서 보면 1970년대 제조업 공장의 노동자로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조 설립투쟁을 전개하였을 때 일부 여성들이 참여하였지만 당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거의

만연한 성차별구조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조직들의 성격에도 기인하는 바 크다(조순경, 1998). 이점에서 노동운동단체들의 가부장제적 특성의 개혁은 여성운동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 조직이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중점과제로 채택하고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노동운동쪽에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노동운동에서 여성노동의 문제는 주변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²⁴⁾ 그러나 어떻든 평등법은 여성운동단체의 노력 끝에 개정되었으며 그 성과는 이후 전개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에서 여성운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여연은 96년 노사개혁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공동토론회를 제안하여 공동주최를 성사('노사관계 개혁과 여성운동', 96. 7. 8)시킨 바 있으며 여연과 양 노총이 연대구조의 기초를 잡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입장이 다른 노동운동단체를 여성이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여연, 1998: 56).

민주화운동단체와 제휴한 여성운동단체는 전체 여성운동단체에서 본다면 소수이다. 여연의 경우는 소속단체에 민가협이 들어왔으며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여성

갖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당하는 부당한 억압에 항거한 정도였다. 그 이후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결혼하여 현장을 떠나고 난 후, 남아 있는 노동운동 여성지도자들은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여성노동운동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87년도에 여노협을 결성하였다(여연, 1998: 19).

- 23) 88년에 여연을 중심으로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이루어냈으나 개정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참여와 노동조합의 연대를 끌어내지 못했다(여연, 1998: 51). 이 때 노동운동의 전역량이 노동법 개정에 투입되어 있었고, 연맹이나 단위노조의 경우, 노조 결성 이후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가는 시기였다는 제약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결집·관철해 나갈 수 있는 여성조직과 지도력이 부재했다는 노동운동의 내적 조건에 따른 결과였다. 또한 평등법 제정 초기부터 개별적 노사관계법(근기법, 평등법)은 제·개정하면서도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의 개정은 강력하게 통제하는 정부의 노동정책도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여연, 1998: 51-52).
- 24) 여성노동자문제를 민주노조 진영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라는 관점과 정책은 결여되어왔고, 이는 곧 노조의 인력과 재정, 사업의 배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여노협에서는 민주노총 결성을 앞두고 「민주노총 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문」을 작성하여, 여연과 여노협이 함께 민주노총(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으나,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못했다"(여연, 1998: 95).

부, 민중불교운동연합 여성부, 전민연 여성위원회 등이 들어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운동단체의 여성부를 통해 연대가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민주화변호사협회와 민주화전국연합,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과도 적극적, 소극적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단체와의 연대 또한 여성운동단체들을 구별화시키고 있다. 민주화운동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운동단체들은 노동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80년대 이후에 창립된 단체들 그리고 주로 여연소속 단체들이다. 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로는 YWCA가 비교적 뚜렷하게 민주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는 것으로 연결망에서 드러난다.

그 외 여타 신사회운동단체들과 여성운동단체들의 관계는 노동운동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간의 관계처럼 여성운동단체간의 균열이 확연하지 않다.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과 다르게 매우 광범위한 여성운동 단체들이 이른바 신사회운동이라 부를 수 있는 기타 시민운동단체와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적, 보수적 또는 80년대 이전이나 이후의 여성운동 단체간의 균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운동의 의제나 목표에서 갈등의 소지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 시민운동 단체들의 성격이 위낙 광범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단체간의 균열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운동단체나 노동운동단체 또는 민주화운동단체처럼 그 균열이 분명하지 않고 복합적이어서 분류하기도 어렵다.

5. 맷음말: 여성운동단체와 성 정치의 전망

한국여성운동단체의 연결망 분석을 볼 때 여성운동단체들간의 연대와 균열은 여성운동단체들의 창립연대나 노선에 따라 분명한 차별화가 드러난다. 80년대 이전과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여성운동단체들은 조직의 특성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연결망에서도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운동단체의 균열은 보수 기득권 여성운동단체와 진보적 여성단체의 차별적 맥락을 보여주며 특히 민주화운동단체와의 연결망 여부는 여성운동단체의 균열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계급보다는 민주화가 여성운동의 균열을 가져온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의 특성은 여성운동단체간의 내부 연결망에서만이 아니라 여성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결망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균열은 사례나 역사적

배경에서 드러나듯 제도권과 비제도권, 또는 독재와의 타협과 항거, 기득권과 기층 여성운동이라는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균열과 차별성은 여성 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간의 연결망에서는 더욱 뚜렷하다. 특히 민주화와 노동운동단체와의 연결망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여성운동 단체들은 노동 운동단체들과의 연대나 민주화운동 단체들간의 연대에서 보듯이 여성운동 단체 내부가 동질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 구성원이나 운영, 운동 목표 계급적 성향 등에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계급적 이해관계가 언제나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운동의 이슈에 따라 다양한 연대를 맺고 있다. 신사회운동이라 부를 수 있는 기타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에서는 이러한 차별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부문 운동도 전체 사회운동으로부터 독립적이거나 자족적이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이며 영향을 주고 받는다. 여성운동 또한 그러하다. 여성운동단체들과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간의 연대와 균열을 보면 노동운동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와 연대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은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이다. 반면 보수적 여성운동 단체들의 경우는 여성운동단체 외의 다른 사회운동단체들과는 연대나 관계를 맺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한 갈등관계도 노정되지 않는다. 반면 신사회운동단체들과는 여성운동단체들이 폭넓게 연대한다. 그러나 신사회운동단체들내의 균열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떤 신사회운동단체와 어떤 여성운동단체는 서로 연대하고 어떤 신사회운동단체와는 연대하지 않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신사회운동내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사회운동단체들의 의제와 성격이 위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논문의 자료만으로 신사회운동이 성, 계급, 민주화에서의 차별을 넘어서 광범위한 연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거나 여성운동단체들이 계급과 민주화의 경계를 가로질러 연대하지는 못하지만 신사회운동단체들과는 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다만 민주화나 계급이 더 이상 주요 쟁점이 되지 않는다면 여성단체들간의 연대는 훨씬 강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90년대 들어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여성운동단체들의 연대는 증가했다.²⁵⁾ 중산층 지향이 높은

25) 연대활동과 동시에 여성요구가 정치력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기반인 대중조직, 지방조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여성노동자운동, 중산층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정치참여, 정신대 대책, 성폭력, 가정폭력문제, 환경문제, 평화통일 문제 등이 주를 이루어 이전 시기에 비하여 여성고유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여협과 보다 기층 여성 지향성을 가진 여연의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라는 것은 여성운동과 사회환경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민주화나 계급이해가 첨예하지 않을 경우 여성운동단체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균열을 보일 것인가는 앞으로 한국 여성운동과 성 정치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여성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 또는 민주화운동단체와의 연대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주목할만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 동안 '진보적' 여성 운동이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의 여성 동원 전략에 이용된 정도만큼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 남녀평등을 얻어내는 전략적 연대가 될 수 있을지는 중요한 관심사다.

성은 여성운동에서 기본적 공통분모로서 특정사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성이 민주화나 계급이해 등의 축을 넘어선 연대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마찬가지로 성의 이해와 계급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계급이 성을 넘어서서 연대기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들다. 이는 앞으로 경험적 연구의 숙제이다. 여성노동운동단체들이 남녀차별과 계급차별을 같은 위치에 놓고 고민하듯이 노동운동단체들이 성차별의 해소를 계급차별의 해소와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경험연구도 필요하다. 앞으로 민주화가 이슈가 아닐 경우 계급적 이해에 따른 여성운동단체의 균열이 분명해 질 것인지도 성 정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이 연구는 여성운동과 성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성이 계급이나 반독재의 경계를 넘어서 연대의 기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여성운동단체들이 성차별을 없애는 여성해방담론의 전략으로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또는 여타 신사회운동을 끌어들일 수 있을련지는 큰 숙제인 동시에 성 정치의 가능성을 짐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 때 여성운동단체내의 균열, 그리고 여성운동단체와 다른 사회운동단체간의 연대와 거리는 성 정치의 지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성운동과 성 정치는 무관할 수 없으며 여성운동단체의 분석은 성 정치의 전망과 무관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운동단체들의 연대와 균열은 성 정치의 가능성을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고조되고 있다(한국여성발전 50년, 1995: 244).

참고문헌

자료

- 대한주부클럽연합회(1997). 『대한주부클럽연합회 30년사』.
- 정무장관(제2)실(1995), 『한국여성발전 50년』.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1994), 『창립 5주년 기념 활동자료집』.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1984).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 한국부인회총본부(1993). 『한국부인회 30년사』.
- 한국여성단체연합(1987-1996). 『민주여성 1호-20호』.
- _____ (1998). 『제6차 정기총회 보고서』.
- _____ 엮음(1998).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0년사』.
- _____ (1997). 『들꽃이여! 불꽃이여! 그대 이름은 여성노동자』.
- _____ (1998). 『여성』, 1-2월호, 4월호.
- _____ 캠플릿(1997).
- 한국여성민우회(1997). 『한국여성민우회 10년사』.
- 김경희(1998). “집합행위 프레임(Collective Action Frame)을 통하여 본 한국과 남미의 여성운동”, 1998년 춘계 한국사회학 대회 발표논문.
- 윤택림(1994).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 여성주의 역사학에 대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10권.
- 이효재(1998).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정우사.
- 조순경·김혜숙(1995). “민족민주운동과 가부장제”, 『광복 50주년 기념논문집 8권』, 한국학술진흥재단.
- 조 은(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여성정책의 현장』, 미래미디어.
- 조주현(1996). “여성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2권 1호.
- Alvarez, Sonia E. (1990), *Engendering Democracy in Brazil; Women's Movements in Transition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 _____ (1994), “Women's Movements and Gender Politics in the Brazilian Transition”, in Jaquette, Jane S., *The Women's Movement in Latin America*, London: Unwin Hyman Ltd.

- Basu, Amrita (ed). (1995), *The Challenge of Local Feminisms*, San Francisco:Westview Press.
- Boles, Janet (1991), "Form Follows Function: The Evolution of Strategie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515: 38-49.
- Breines, Wini (1989), "Community and Organization in the New Left, 1962-68", New Brunswick, N.J.: Rutgers.
- Brenner, Johanna (1996), "The Best of Times, the Worst of Times: Feminism in the United States", in Monica Threlfall (ed.).
- Briskin, Linde & Patricia McDermott (eds.) (1993), *Women Challenging Unions: Feminism, Democracy, and Militanc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 Buechler, Steven M. (1990), Women'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Brunswick, N.J.: Rutgers.
- _____, (1995), "New Social Movement Theories", *Sociological Quarterly* Vol. 36, No. 3.
- Calhoun, Craig (1994).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 Chuchryk, Patricia M. (1994), "Feminist Anti-Authoritarian Politics: The Role of Women's Organizations and in the Chilean Transition to Democracy", in Jaquette, Jane S., *The Women's Movement in Latin America*, Boulder: Westview Press.
- Cliff, Tony (1987), *Class Struggle & Women's Liberation: 1640 to the Present Day*. London: Bookmarks.
- Cloward, Richard A. et al. (1995), "Movements and Dissensus Politics" in Darnovsky, Marcy (eds.), *Cultural Politics and Social Movement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Cohen, Jean L. (1985), "Strategy or Identity: New Theoretical Paradigms and Contemporary Social Movement", *Social Research* 52: 663-716.
- Costain, Anne N. (1992), *Inviting Women's Rebellion: A Political Progress Interpretation of the Women's Movement*, Baltimore: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arnovsky, Marcy (eds.) (1995), *Cultural Politics and Social Movements*, Temple University Press: Temple University.
- Eder, Klaus (1982), *A New Social Movement?*, Telos, 52 (Summer): 5-20.
- Escandon, Carmen Ramos (1994), "Women's Movements, Feminism and Mexican Politics", in Jaquette, Jane S., *The Women's Movement in Latin America*, London: Unwin Hymen Ltd.
- Escobar, Asturo and Sonia E. Alvarz (eds) (1992), *The Making of Social Movements in Latin America*, Boulder: Westview Press.
- Fantasia, Rick (1988), *Cultures of Solidar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erguson, Ann (1991), *Sexual Democracy: Women, Oppression, and Revolution*, Boulder: Westview Press.
- Ferre, Myra Marx and Patricia Yancey Martin (1995), *New Women's Movement*, Temple Press.
- Ferree, Myra Marx, and Beth Hess (1985), *Controversy and Coalition: The New Feminist Movement*,

- Boston: Twayne.
- Freeman, Jo (1987), "Whom You Know Versus Whom You Represent: Feminist Influence in the Democratic and Republican Parties", in *Women's Move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eds. Mary Fainsod Katzenstein and Carol McClurg Mueller, 215-244.
- Jaquette, Jane S. (1994), "Conclusi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Prospects for Democracy", in Jaquette, Jane S., *The Women's Movement in Latin America*, London: Unwin Hymen Ltd.
- _____, (1994), *The Women's Movement in Latin America*, Boulder: Westview Press.
- Jenson, Jane (1996), "Representation of Difference: The Varieties of French Feminism", in Monica Threlfall.
- Katzenstein, Mary Fainsod & Carol McClurg Mueller (eds) (1987), *The Women's Move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Katzenstein, Mary Fainsod (1990), "Feminism Within American Institutions: Unobtrusive Mobilization in the 1980s", *Signs* 16: 27-54.
- Kim, Kyounghie (1998), *Gender Politics in South Korea: The Contemporary Women's Movement and Gender Policies, 1980-1990*,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Klein, Ethel (1984), *Gender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 Kruks, Sonia, Rayna Rapp and Marilyn B. Young (eds) (1989), *Promissory Note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Larana, Enrique (eds.) (1994), *New Social Movements From Ideology to Identity*.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 Mackie, Vera (1996), "Feminist Critique of Modern Japanese Politics", in Monica Threlfall.
- Maier, S Charles (ed.) (1987), *Chang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hews, Nancy (1995), "Feminist Clashes with the State: Tactical Choices by State-Funded Rape Crisis Centers", in Ferre, Myra Marx and Patricia Yancey Martin, *New Women's Movement*, Temple Press.
- Mayer, Margit. et al. (1995), "New Social Movement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Fordist Society" in Marcy Darnovsky (ed.), *Cultural Politics and Social Movements*.
- Meyer, David S. and Nancy Whittier. (1994). "Social Movement Spillover," *Social Problems* 41-2.
- Mueller, Carol (1995), "The Organizational Basis of Conflict in Contemporary Feminism", in Ferre, Myra Marx and Patricia Yancey Martin, *New Women's Movement*, Temple Press.
- Offe, Claus (1987),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 social movements since the 1960s" in Charles S. Maier (ed.), *Changing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p63-105.

- Poster, Winnfred R. (1995), "The Challenges and Promises of Class and Racial Diversity in the Women's Movement; A Study of Two Women's Organizations", *Gender & Society*, 9-6 (December): 659-679.
- Rowland, Robyn(ed.) (1984), *Women Who Do & Women Who Don't: Join the Women's Movemen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Ryan, Barbara (1992), *Feminism and The Women's Movement: Dynamics of Change in Social Movement, Ideology and Activism*, New York: Ruotledge.
- Scott, Alan (1990), *Ideology and the New Social Movements*, London: Unwin Hyman.
- Smith, Barbara E. (1995), "Crossing the Great Divides; Race, Class, and Gender in Southern Women's Organizing, 1979-1991", *Gender & Society*, 9-6(December): 680-697.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Frontiers of Social Movement Theory*, eds. Aldon Morris and Carol Muller, 133-155, New Haven: Yale.
- Threlfall, Monica (ed.) (1996), *Mapping The Woman's Movement*, London: Verso.
- Whittier, Nancy (1994), *Feminist Generations: The Persistence of the Radical Women's Movement*, Philadelphia: Temple.

abstract

Networks of Korean Women's Organizations: Coalition and Divides

Cho Uhn*

This paper analyzes the networks and divides of women's movement (WM) organizations in Korea, using data collected by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working in those organizations. It purport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gender can effect political unity among women across class and other political cleavages. A distinction appears between the so-called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WM organizations not only in the internal networks among WM groups but also in external ties between WM and other social movement (SM) groups. The former have almost no relationship with labor movement groups while the latter have relationship with labor movement groups and a lot more with democratization group. Therefore, each of three categories of groups — labor movement,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New Social Movement (NSM) — shows a different pattern of ties with WM organizations: in general WM organizations have fewer ties with labor groups, while a lot more with democratic movement groups. It is NSM which have the most wide-ranging networks. This would not necessarily mean that WM and NSM groups work together in closer solidarity across divides of class and democratization. NSM organizations outnumber labor and democracy groups and vary widely in their agendas, goal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Some WM organizations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certain NSM organizations while others have none,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and class orientations. The paper concludes that gender is

*Professor of Sociology, Dongguk University

Research Area: Social Class, the Family, Gender Studies

Major Publication: *Women's Voice and Women's Experience: A Field Note on Gender Policy — Making in Korea*(1996)

E-mail: chomomo@carka.dongguk.ac.kr

not sufficient to ensure political unity among women of different classes or of different positions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labor movements; however, a ‘politics of solidarity’ based on an appreciation of the intersections of class, gender and democratic forces is possible and important for working towards gender equality.